2004학년도 연세대학교 **논 술 II** 입 학 시 험 문 제 지

다음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논하시오. (1,700자 안팎으로 쓰시오.)

(가)

데이터 스모그(data smog)는 단지 우리의 가정이나 전자 우편함에 날마다 배달되는 쓸데없는 광고지와 정보 쓰레기 더미뿐만이 아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상당한 돈을 지불하는 정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현란하게 흥미를 끄는 퀵 컷(quick-cut)의 텔레비전 광고들과 24시간 최신 뉴스 속보들, 요청한 것은 물론 요청하지 않은 팩스들, 저녁 시간 동안 잘못 걸려온 전화들, 애처롭게 호소하는 판촉 전화들, 그 시간을 전후하여 우리가 열심히 방문했던 웹 사이트, 매달 탐독하는 산더미 같은 잡지들, 자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손끝으로 돌려대는 수많은 채널들,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스모그에 속한다.

(…) 대체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매체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텔레비전, 전화, 라디오, 호출기, 그리고 다른 각종 현대적 통신 도구들과 검색 보조 장치들은 이제 도로와 테니스화처럼 흔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이 가는 곳 어디에든지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이 뒤따른다. 열차, 비행기, 자동차 안에서, 호텔 욕실에서, 조깅 코스나 등산길에서, 자전거나 배 위에서조차도.

정보와 오락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온다. 거대한 영상스크린이 경기장을 장식하고, 극장 무대에 설치된다. 보통 크기의 텔레비전은 술집의 천장이나 공항 라운지에 걸리고, 소형 텔레비전은 최신 여객기의 개인 좌석 앞에 설치된다. 휴대폰 대화는 길거리와 건물 안 복도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호출기와 랩탑 컴퓨터는 집에까지 따라오며, 휴가 중에도 우리 곁에 있다.

(…)

기사 형식의 광고에서 기사 내용과 상업적 메시지들 간의 경계가 교묘하게 흐려짐으로써 스모그는 더욱 짙어진다. 그래서 종종 누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점점 더 우리의 비어 있는 공간들 대부분이 임대되고 있다. 도시의 보도, 거리, 공원, 쓰레기차 위에 첨단 기술의 광고 판매를 기획하고 있는, 애틀란타 시의 마케팅 담당 공무원 조엘 배빗(J. Babbitt)은 "이것이 어리석은 짓인가?" 하고 묻는다. "그렇다. 그러나 대형 원형극장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벤치에앉아 나이키 모자를 쓰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마이클 조던(M. Jordan) 또한 광고 판매를 원한다. (…)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벌린다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실제로 깨어 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끊임없는 자극의 폭격이 어떤 점에서 해로운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지 과밀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

1975년에 밀그램(S. Milgram)은 감각의 과부하가 도시 스트레스의 근원적 원인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 밀그램의 자극 과부하 이론의 타당성이 확인됨으로써, 그의 이론은 1970년대 도시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1997년의 데이터 스모그 희생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 거주자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자극의 포화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이 이론은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온 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데이비드 셴크, 『데이터 스모그』 】

( )

말함의 본질적인 가능성의 하나인 침묵함도 동일한 실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서로 함께 말하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본래적으로 "이해하게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가 증진된다는 보장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장황하게 말함은 이해된 것을 은폐하고 거짓 명료성 속으로, 다시 말해서 진부함의 몰이해로 이끈다. 그렇지만 침묵함이 벙어리로 있는 것은 아니다. 벙어리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벙어리는 그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애당초 그런 것을 증명할 가능성조차 없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사람도, 벙어리와 마찬가지로, 그가 침묵하고 있고 침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진 (결정적) 순간에 침묵할 줄도 모른다. 오직 진정한 말함에서만 본래적으로 침묵함도 가능한 것이다. 현존재는 침묵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풍부하게 열어 밝힐 처지에 있어야 한다. 그 때에 침묵하고 있음은 자기자신을 드러내고 '잡담'을 눌러버린다. 침묵하고 있음은 말함의 양태로서 현존재의 이해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분류 파악하여, 이 이해 가능성으로부터 진정한 들을 수 있음과 투명한 서로 함께 있음을 생기게 한다.

【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다)

맹자(孟子)가 양(梁) 혜왕(惠王)을 만났더니, 왕이 맹자에게 말했다.

"노인께서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실 방도가 있으시겠지요?"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말씀하시면, 대부(大夫)들은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선비와 백성들은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가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맹자』】